



불교대학을 찾아서

⑩ 대광불교대학

통도사부신포교원(주) 상진 대광불교대학의 2학기 개강일이었던 16일, 화엄회관 강당에 모인 수강생들은 예뻐올리고 학장 상진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법문이 끝나자 수강생들은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일부는 강당이나 법당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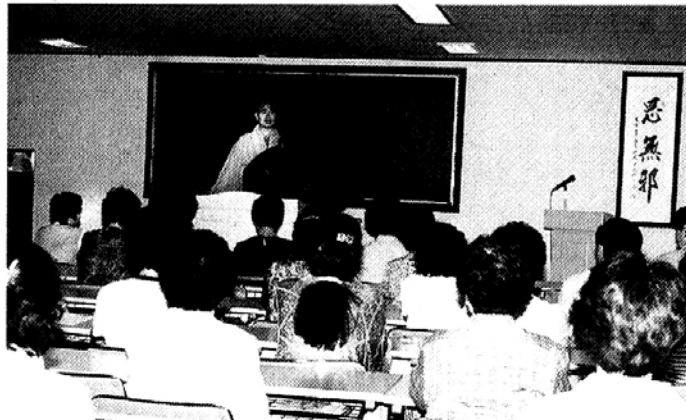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광불교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과 수업 때문인데 각각의 장소로 옮긴 수강생들은 사회복지과, 신학과, 포교사과로 나눠 3개월간 진행될 개별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30여명의 사회복지과 수강생들은 불교대학의 교과목치고는 다소 생소한 건강과 질병, 환자간호법 등에 대한 첫 수업을 가졌다.

분과 수업은 불교 전반에 관한 기초 교육을 공통으로 하되 수강생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과를 나눠 실시하는 전공 수업 방식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진행되는 분과 수업은 이론과 실연을 하나가 되게 해준다. 부산직업사과와 연계, 간호의 기초과정, 질환별 간호, 임신부 돌보기, 응급처치 등의 과정을 이수하면, 응급조치요원 자격증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자 간병봉사자 양성의 장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참선 실수, 발음공양, 염불, 1080배 등 체험위주로 진행되는 신행과와 포교

사 시험대비를 위한 포교사 등의 분과 수업도 수강생들의 피부에 와닿은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불교대학이 포교사 시험을 위해 학원화되어 가는 상황에 맞서 불자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고 실천의 토대가 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분과 수업은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신행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고 나선 대광불교대학은 1996년부터 개설된 제 1기 신행학교를 모태로 야간신행학교 개설, 대광불교대학 설립을 위한 도덕경강



▷대광불교대학2학기 개강식에서 학장 상진스님이 수강생들에게 법문하고 있다.

배운 만큼 회향한다'는 신행학교의 풍토는 대광불교대학의 신행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했다. 이 밖에도 각종 봉사활동과 사물놀이, 다도, 서화, 서예부, 문화답사회 등의 특별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광불교대학은 불법을 배우고 그 배움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길 기대하는 불자

전국유일 3개과 나눠 석달간 분과수업 사회복지과선 건강·환자간호법도 강의 포교사 재교육 등 전문과정 신설 계획

의 등을 거쳐 골격을 갖췄다. 3개월 과정이었던 신행학교는 대광불교대학 부설 6개월 기초교육과정으로 연 2회 개설되고 있다. 특히 신행학교 수료이후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위해 기수별로 고불공양, 생불공양, 현불공양, 연불공양, 진불공양 등의 신행단체를 결성하고 사찰 참배, 보리암 기도, 자체 행사 봉사, 무료급식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들에게 인기가 높다. 새로운 교과 과정 도입으로 개교 2년의 짧은 기간에도 부산에 3곳뿐인 조계종 인가교육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거뒀다.

박규보 교무처장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을 마친 포교사를 위한 교과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3년 과정 정도로 전문화된 교과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천미희기자

풍다는 티베트 불자들이 샷된 것을 물리치기 위해 사할 주변이나 불탑, 혹은 동에 어구나 마당에 세우는 것일이다. 깃대는 보통 대나무를 사용하고, 기폭은 청·백·적·녹·황·靑·白·赤·綠·黃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은 우주의 본질이나 구성 요소 또는 진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할에서는 보통 색깔별로 다섯 풍단을 세우고 일반 가정에서는 다섯 가지 색깔의 작은 깃폭을 하나로 이어 매단다.

풍단의 기폭에는 힘찬 말(馬)의 형상과 경전이나 만트라를 묵관으로 인쇄한다. 이는 풍단에 샷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온 세상 구석구석 퍼지려는 원력을 이룬다.

풍단이라는 말의 <풍>은 티베트어로 바람(風)을 뜻하고 <단>은 말(馬)을 뜻한다. 영문 번역서에서 풍단을 Wind Horse 라고 직역했듯이, 풍다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은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10> 바람 앞에 일어난 말

풍다, 우주의 본질이나 진리 상징

히말라야 곳곳서 마음속 법음으로 펄럭

마치 거센 바람 앞에 갈기를 휘날리며 일어난 상냥한 말 같다.

여러 해 전 봄, 네팔 동쪽에 인접한 소왕국 '찌킴'의 변방인 육속 마을에서는 향년 80세 노비구니의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가 사할 뒷산에 마련된 화장터로

가고 있었는데, 풍다가 이 행렬을 앞뒤에서 장엄하고 있었다.

찌킴의 불교도들은 사신을 입관할 때 가 부좌로 판에 앉히는 풍습이 있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진 묵관은 우리의 그것처럼 장방형이 아니라 정방형에 가까웠다.

후배 뒷바라지로 1년간 배움 회향

1기 졸업생 구영희 포교사



"포교사가 된 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운 것을 회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보람 있다."

수업 전반에 관한 업무 보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1기 졸업생 9명중의 한사람인 구영희(49·당강동)보살은 "내 몸짓과 말 하나가 불법을 전하는 향기가 될 수 있길 발원하며 봉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매주 목, 금요일 열리는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 출석 점검, 명찰 배포 등 후배를 뒷바라지하는 일로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공평내 단칸방서 꿈 키우는 성재자매

"백의의 천사' 될래요"

성재(18·해원고2)와 성진이(15·면목중2) 자매가 4년째 '홍로서기'를 하고 있는 서울 면목동 연립주택 지하단 칸방. 귀퉁이 공평내가 진동한다. 울여름 장마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탓이다. 벽마다 시커멓게 슬어 있는 곰팡이. 묵은 달력으로 덧댔다. 척척 갈라진 방바닥, 붙여놓던 천테이프 모서리가 돌돌 말려있다. 하지만 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엄마가 누워있던 방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조용하고 쉼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재는 좀처럼 말이 없다. 여동생 성진은 아예 자리를 피하고 없다. 보기 좋게 '불청객'이 되어버렸다. 한참 후 성

재의 병 수발이 엄마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다.

"원래 엄마는 자주 피곤해 하셨어요. 나 쪽으로 어떻게 살려며 늘 말했어. '죽은 것 같애' 라는 말만 되풀이했어. 그러다 누워만 계신 줄 알았는데, 혼들어 봐도 의식이 없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갔었는데... 그날 성진은 엄마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밖에서 뒤늦게 놀다 들어와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요. 생각해보면, 오히려 어린 동생에게는 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재는 엄마를 중학교 1학년 때 보냈다. 엄마애기를 하며 성재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연

아버지·어머니 가스중독·당뇨병으로 타계 학교지원금 등 월25만원으로 힘든 하루하루



▷아빠를 보살펴줬던 원진(왼쪽)과 성재(오른쪽) 보살. 사진은 원진(왼쪽) 씨가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성재가 말없이 눈물을 흘려 내고 있다.

어릿기 때문이다. 이

재는 짧은 호흡의 단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어려서부터 '병원'을 '집'처럼 다니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스중독으로 산재 판정 받은 뒤로 죽, 아편, 식물 인간이었어요. 말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은 아빠의 죽음, 사실 가늠할수 없다. 성재가 4살 때 화학실험실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 홍원표 씨는 '시에스투 가스 중독'이라는 신재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그후로 8년 넘게 투병 끝에 96년에 세상을 떠났다. 곧이어 2년 뒤, 엄마 신영희 씨도 당뇨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

신 뉘아 낸다. 요즘 들어 심각한 고민에 빠진 성재. 몇 달 후엔 고3이 된다.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문턱에도 못가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전부인 성재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게 법 잘하는 축에 든다. 장래 희망이 간호사란다.

하지만 성재자매는 소년소녀가장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서울 홍제동 판자집이 이들 자매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러다보니, 이집에서 나오는 사글세 10만원과 학교지원금 15만원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성진에게는 제가 '엄마' 나뉘어 없어요. 이제 고3이 되면 바블 테지 만, 동생에게 볼 거친 방만만큼 보여주지 않을래요."

열여덟 사춘기 소녀 성재. 이미 거친 세상을 이겨낼 만큼 당당하게 홀로서 있었다. 주소:서울 중랑구 면목3동 575-5 지층

후원 계좌:신한은행 357-02-192895 (예금주 홍성재)

김철우 기자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

- 교계 최초로 1972년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법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 과정임(30년 전통 2000여 동문 졸업 및 500여 법사 배출) -

- 강의시간 2002년 8월 26일 개강 주 4일 출석(일화수목), 필수: 5과목, 선택: 2과목 강의(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엽(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불교의식실수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법패전승자)
- 교육과목 (* 2년간 불교의식 실수 및 동·학계 수련회(2박 3일) 개최)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연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연사상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원전강독 · 불교의식 및 말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불교 대학과정 졸업자(2학년 편입)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8월 31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수시모집)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범죄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敎大學 학장 헤거스님

140-190·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02) 756-7258
Homepage: www.idaewon.or.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베짖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베짖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질할(베짖)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혈(베짖)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베짖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베짖"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체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봐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때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베짖을 베짖(신질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을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매당되는 증상엔 () 한시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머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짖이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